도내 전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짓는다

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 12개 초·중학교에 건립 계획
"교육감 임기 내 완공 못해도 조성 계획은 확정할 것"

제주도교육청이 올 들어 '다목적체육관 설치 대상 학교 순위 선정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시설이 없는 학교의 '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목적체육관(이하 체육관) 미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체육관 설치 계획 안내는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10교(한동·가파·수산·온평·덕수·창천·도평·토산·선흘·추자초)와 중학교 2교(제주·추자중)로 읍면과 도서지역 학교가 대다수다. 현재 체육관이 없는 학교 중에서 지난해 10월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5년까지 건립을 추진하는 8개 초등학교(북촌·하례·동홍·서귀북·성산·김녕·흥산·납읍초)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뒤 부지 확보, 지역 여건,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연도별 건립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체육관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진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도와 분담하거나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체육관 단일 공사에만 50억 원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비용 전체를 부담할 경우 향후 총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임기 내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같은 해 9월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언제까지 체육관 문제에 답해야 하느냐"며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비 확보나 도청과의 분담을 통해 체육관을 지으려면 협의 과정이나 절차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탓에 부지가 마련된 학교 등 순서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차근차근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교육감 임기 내 대상 학교 모두 체육관을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건립 계획은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방침에도 일부 학교는 당장 부지 확보가 안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역 중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제주중도 그런 곳이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 있는데다 부지마저 없는 제주중은 인근에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지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치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싶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에 체육관이 생기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행정과 협력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헌혈 600회' 기록 세운 이영찬씨

"헌혈은 건강할때 들 수 있는 보험"

도내 2번째·전국 14번째 기록

제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역대 두 번째 600회 헌혈자가 탄생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13일 제주시 헌혈의집 한라센터에서 이영찬(57)씨의 600번째 헌혈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이날 600회 헌혈 기록을 달성한 이영찬씨는 제주지역에선 두 번째, 전국에서는 14번째다. 이번 이씨의 헌혈기념식은 매월 13일인 '헌혈의 날'에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씨는 "어릴 적부터 적십자 활동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며 "혈액수급 문제는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문제다 보니 작은 봉사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껏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씨는 또 "헌혈은 건강할 때 참여할 수 있기에 내가 건강할 때 들 수 있는 보험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 보험의 혜택을 나뿐만이 아닌 혈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헌혈자 예우 및 헌혈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도영기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제주시가 올해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 연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오후 4시30분에 운영이 종료돼 이송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장애인의 재활 교육 시간 부족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시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주간보호시설 7곳에 총 6902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귀가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상생활 교육,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1곳이며 이용자는 총 373명이다. 진선희기자

제주도의회 정원 튤립 만개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5일 제주도의회 정원에 튤립이 만개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천주교 제주교구 오는 18일 관동대지진 100주년 다큐 상영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18일 관동대지진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와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며 18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천주교 제주교구 동광성당 1층 강당서 진행된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재일동포 오충공 감독이 제작한 관동대지진을 비롯해 조선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춰진 손톱자국'(1983, 58분)과 '1923 제노사이드, 93년간의 침묵'(2016, 트레일러 18분)을 상영한 후 히토쓰바시 한국학연구센터 이규수 교수의 사회로 오 감독과의 대화가 열린다.

상영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4-739-0951. 김도영기자

4·3 유족 50명 '명예교사'로 교단 선다

어제 위촉장 받고 63개 학교서 현장체험 등 맡아

오는 20일부터 50명의 4·3 명예교사들이 청소년들과 만나 4·3의 기억을 전승한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활동을 펼칠 2023학년도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추천을 받아 4·3 명예교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명예교사는 사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4·3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삶의 이야기, 학교 인근 4·3유적지 설명, 4·3의 교훈, 평화와 인권 가치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왔다.

특히 올해는 50~80대 연령의 4·3 명예교사들이 4·3 전문가과정을 이수한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읍면 초등학교인 경우엔 인형극을 활용한 명예교사 수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명예교사제를 신청한 학교는 총 63교다.

도교육청에서는 "명예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수업을 주로 하던 명예교사의 활동 범위를 현장 체험학습까지 확대하는 등 4·3 평화·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